

한국 지역신협의 성장의 특징

김명록* · 최진배**

On Characteristics of the Growth of Regional Credit Unions in Korea

Kim, Myoungrok*, Choi, Jin-Bae**

국문요약 한국 지역신협은 1960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조합원의 자발적인 운동을 통해 설립되고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다른 금융협동조합과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것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논의는 지역신협의 성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논문은 지역신협의 성장방식을 분석하고 그것의 특징을 도출하려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논문은 신협 중앙회에서 제공한 2004년~2015년 개별조합의 재무제표와 대출 및 예금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이 논문에서 밝혀낸 것은 다음과 세 가지이다. 먼저, 2000년대 지역신협의 성장에는 성장논자의 논리가 반영되어 있다. 둘째, 지역신협의 성장은 자금조달면에서는 비과세 예금에 그리고 운용면에서는 거액대출, 담보대출 및 기타담보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셋째, 지역신협의 성장방식은 장기적으로 자산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수익성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신협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이다. 지역신협은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여 지역밀착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한국지역신협, 성장지향적 발전, 지속가능성, 정체성

Abstract : It is unique from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that credit unions in Korea have been developed as voluntary activity for enhancing the financial access of the poor in 1960s. However, currently some raise criticism that the cooperative identity as voluntary movement has been weaker. This paper endeavor to analyze the growth of credit unions during 2000s and explain what the implications of their growth are, using data from National Credit Union Federation of Korea.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development of credit unions in 2000s are able to be regarded as a reflection of the rationale of advocate for quantitative growth. Secondly, the growth of credit unions are mostly dependant on non-taxable deposit, large loan, and collateralized loan which can lead to weaken the identity as voluntary cooperatives. Thirdly, the strategy of quantitative growth cannot be helpful for

* 경성대 경제금융물류학부(주저자: namu@ks.ac.kr)

** 경성대 경제금융물류학부(교신저자: jbchoi@ks.ac.kr)

soundness of asset and profitability, eventually weakening their sustainability.

Key Words : Credit Unions in Korea, Growth-oriented Development, Sustainability, Identity

1. 문제제기

한국 지역신협은 1960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조합원의 자발적인 운동을 통해 설립되고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다른 금융협동조합과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적경제로서의 규범이나 가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김정원, 2014)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이 약화되면 지역신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금융기관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이때 특히 문제로 되는 것은 지역신협이 조합원과 지역경제를 위해 기여하는 바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신협에 대한 기존 논의는 지역신협의 성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거의 주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논문은 지역신협의 성장방식을 분석하고 그것의 특징을 도출하려 한다.¹⁾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논문은 신협 중앙회에서 제공한 2004년~2015년 개별조합의 재무제표와 대출 및 예금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이 논문에서 밝혀낸 것은 다음과 세 가지이다. 먼저, 2000년대 신협의 성장에는 1970년대 이후 진행된 정체성논쟁 내지는 적정성장방식에 대한 논쟁에서 승리한 성장논자의 논리가 고스란히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의 비과세 예금정책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조달한 자금을 거액대출, 담보대출, 기타담보대출로 운용하였다. 이는 조합원 간의 상호성과 민주적 경영참여 등을 강조하는 협동조합의 정신과 다르며, 지역신협이 성장일변도의 금융기관적 성장경로를 밟아 왔다는 평가의 근거가 된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개별 지역신협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신협의 성장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자산증가율에 가장 크게 기여

한 것이 어떤 변수인지 분석하고자, 비과세 예금과 거액대출, 담보대출 및 기타담보대출과 자산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그리고 자산증가와 신규조합원 대출 간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고성장 지역신협의 경우, 저성장 지역신협과 달리, 비과세 예금의 증가와 거액대출의 증가, 담보대출 및 기타담보대출의 증가가 자산성장을 이끈 핵심 변수였고, 이러한 예금과 대출의 증가는 조합가입 기간이 짧은 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율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신협의 이러한 성장방식이 장기적으로 자산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수익성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절에서는 한국 지역신협의 성장방식을 둘러싸고 벌어진 성장논자와 정정보존논자 간의 논쟁과 결과를 정리하고 2004년~2015년 동안 지역신협의 성장방식을 예금, 대출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분석한다. 3절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될 변수를 소개하고 그것의 기초통계량을 정리하였다. 4절에서는 패널분석을 통해 지역신협의 성장에 기여한 핵심변수를 추출해내고 이를 통해 지역신협의 성장방식을 평가한다. 동시에 지역신협의 성장방식이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한다.

2. 한국지역신협의 성장을 둘러싼 논쟁과 성장방식에 대한 분석

1) 신용협동조합의 성장을 둘러싼 논쟁

우리나라 지역신협은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상 정

부가 공신력을 부여하면서 조합원의 가입이 늘어나고 예금도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은 성장방향에 대한 지역신협 내부의 논쟁을 낳았다.

1970년대 논쟁은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자는 이른바 성장논자들에게 의해 촉발되었다.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였던 정형보전논자들은 성장논자의 방식대로 성장할 경우 조합원의 자율성 내지 자발의식이 위축될 뿐 아니라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협동조합 운동도 전개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²⁾ 정형보전논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Laidlaw의 지적에 비추어볼 때 타당성하다.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정부는 그것을 관리하려 한다. 혹은 협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지원이 과도한 나머지 협동조합은 자주적으로 신장되지 못하고 도리어 질식하는 경우도 있다.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협동조합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성장하기 위해 적합한 모양을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Laidlaw, 1980: 26)

송보경의 적정성장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지역신협지도자들 사이에는 지역신협운동이 이대로 가도 좋은가? 얼마만큼 성장을 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성장은 신용협동조합운동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송보경, 1976: 10)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성장에 대한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역신협법 제정 이후 지역신협은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1972년 말 기준 138,686명이었던 전체 조합원은 1980년대 말에는 40,245배 증가한 589,696명이 되었으며, 같은 기간 자산 역시 15.2백만 원에서 1,840백만 원으로 121배 증가하였다.³⁾

1970년대부터 시작된 성장경로를 둘러싼 논쟁은 1980년대에도 전개되었다. 1980년대 초반 금융자유화와 경기침체로 지역신협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다.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지역신협의 정체성논쟁도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⁵⁾ 윤영성(1984)에 따르면 정형보전논자들은 경영을 합리화하고 금리를 인하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지역신협이 금융기관으로서 어느 정도 성공하였으나 공동체 의식의 제

고 또는 지역신협 정형에서는 상당히 멀어졌다고 평가하면서, 금리를 인하하면 “지역신협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자산증가와 활발한 여수신 업무로 오히려 더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성장논자들은 “이러한 가정은 자산규모가 적어도 20억 이상이 되며 제반 여건이 상당히 양호한 상태에서 아직도 제도금융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수많은 서민들(조합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강렬한 의지가 임직원, 조합원에게 결집되어야 가능할 것이다”고 말하면서 “작은 것은 아름답다는 형이상학적인 상념에만 집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즉 지역신협의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영단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금융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한국은행은 국내연구자들에게 지역신협을 포함한 제2금융권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이때 김병주 외(1981)는 도시의 대형 지역신협을 상호신용금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지역신협의 설립이념이 퇴색되고, 구성원간 공동유대가 희박하며, 기능도 상호신용금고와 차이가 없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이라도 해주듯 1980년대 초중반에 걸쳐 사고지역신협이 발생하였다.⁶⁾

대내외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정형보전논자들은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신협이념을 다시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조합원의 ‘선교육 후가입’ 제도는 무너져 ‘선가입 무교육’ 풍조가 만연”되어있는 현실(이상호, 2003: 203)을 안타까워하였는데, 교육과 협동조합의 정체의 상호관련에 대한 일본의 협동조합 학자인 가가와(賀川豊彦)의 다음 지적은 그들의 문제의식을 잘 대변한다. “만약 모든 조합원들이 협동조합 경제학의 원칙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협동조합은 궁극적으로 붕괴되고 말 것이다. … 따라서 협동조합운동은 무엇보다 교육운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Birchall(1997), p.110에서 재인용) 조합원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자금의 납부를 중시하기도 하였는데 전철환(1990)은 출자금이 늘어나면 조합원들의 주인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정정보존론자들의 주장이 경시되는 가운데 규모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성장논자의 주장은 더욱 힘을 얻었다.⁷⁾ 그리고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성장논자들의 의견은 지역신협의 핵심적인 성장전략으로 자리하게 된다. 신협중앙회는 『2000년을 향한 신협중장기 발전구상』(1989)을 확정한 후, 『신용협동조합의 금융업무확대 방안』(1991), 『신용협동조합의 금융업무확대계획』(1992), 『신용협동조합 기능강화와 중앙기금의 설립』과 『신협 구조조정 및 향후 접근방향』(이상 1996년)을 잇달아 발표하였는데, 이는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신협의 성장지향적인 전략을 확고히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게 된 배경으로 우리는 은행 등이 가계금융시장에 적극 진출하면서 지역신협의 경영이 크게 불안정해졌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1980년대 이후 경영난으로 소멸한 조합이 현저히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⁸⁾

신협중앙회가 규모를 확대하여 금융기관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또 다른 계기로 정부의 정책을 간과할 수 없다.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신협을 상호신용금고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 대신 지역신협을 지역의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지역신협을 지역의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은 1993년 금융발전심의회가 『금융제도개편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공식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보고서는 지역신협을 상호신용금고 등과 함께 지역사회에 밀착한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시킨다고 말한다.

지역의 서민금융기관으로 된다는 것은 “비교적 신용도가 낮은 특정계층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이재용·최장봉, 1989: 69)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신협의 설립목적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는 자연스러운 주장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제안이 협동조합으로서 지역신협의 정체성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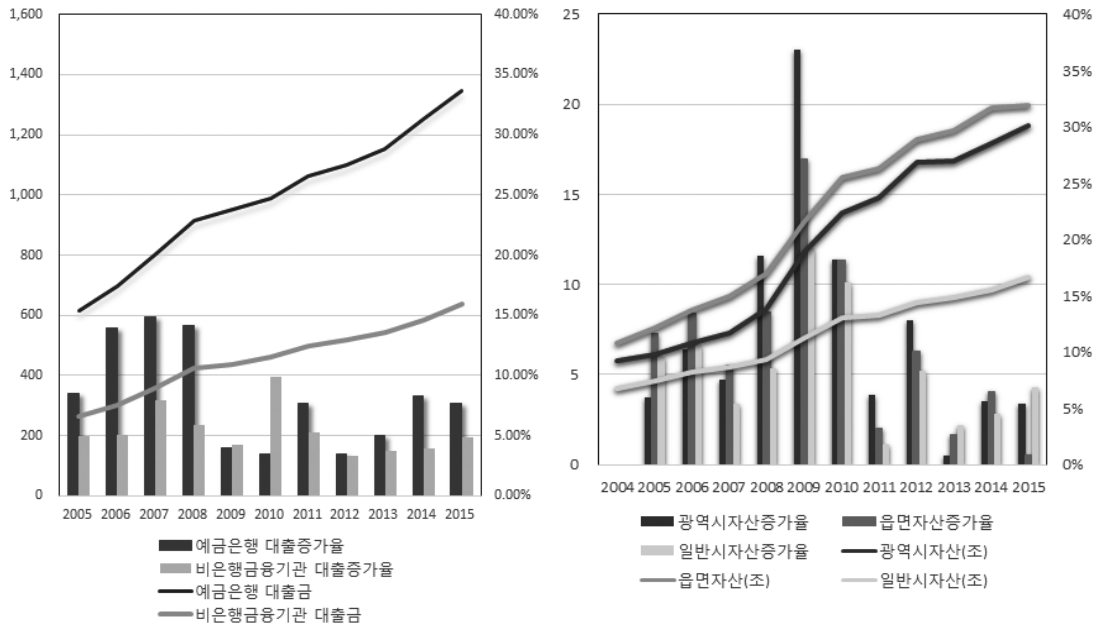
지역신협 스스로도 공신력이 낮고, 가격경쟁력이 열세에 있으며, 금융서비스 제공능력도 취약하여 날

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금융시장에서 생존하기 힘들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지역신협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틈새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¹⁰⁾ 서민금융기관으로서 틈새시장에서 생존가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협동조합으로서 지역신협의 정체성이 더욱 약화되었다. 이환영(1991)은 이렇게 말한다. “... 신협운동이 금융업무에 치우치다보니 이념의 약화, 민주적 관리능력의 약화, 각종 지역사회개발사업의 형식적인 추진과 내용의 단순성으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지역신협 내부에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 그리고 지역신협 스스로도 자신을 서민금융기관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신협이 다른 상업적 금융기관과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연구자들은 찾아보기 힘들다.¹¹⁾

2) 신용협동조합의 성장 방식에 대한 분석

2000년대의 지역신협 성장 역시 1970년대부터 진행된 정정보존론자와 성장논자의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고찰될 수 있다. 앞서 말하였듯이,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정신의 강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등을 강조한 정정보존론자의 주장이 약화되고 정부의 금융정책에 힘입어 틈새시장인 서민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성장논자의 주장이 2000년대 이후 지역신협의 성장과정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먼저 <그림 1>은 예금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및 지역신협의 자산증가현황을 보여준다.

예금은행은 2005~2015년 연평균 8.28%의 대출자산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지역신협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자산증가율은 5.39%였다. 특히 지역신협은 연평균 10.68%의 자산증가율을 기록하였다(필자 계산). 특히 지역신협의 성장은 2008~2010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는 예금은행이 대출자산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보수적으로 영업을 하고 저축은행 부실에 의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시기로 그 반사이익을 통해 지역신협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후 지역신협은 다른 금융기관과 유사하게 낮은 성장률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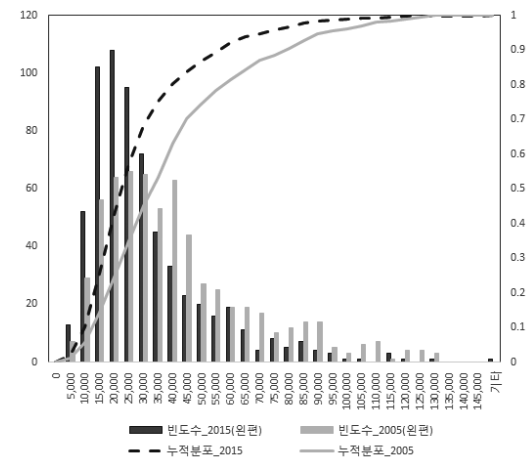
〈그림 1〉 지역신협의 자산현황(소재 지역별 및 시중은행과의 비교)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신협 중앙회

하게 된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시장의 진입은 지역신협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구축한 서민대출이라는 틈새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급격하게 약화시켰다. 2010년 이후 지역신협의 성장경로는, 시중은행과의 경쟁을 딛고 급격하게 성장하려는 성장지향적 지역신협에서부터 시중은행과의 경쟁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면서 소규모 금융기관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정체된 지역신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화되었다(〈그림 2〉). 자산규모의 분포를 볼 때 2005년에는 다수의 지역신협이 비슷한 자산규모를 가졌으나 2015년에는 자산규모에서의 분화가 관찰된다. 이는 급속히 성장한 지역신협이 다수 생겨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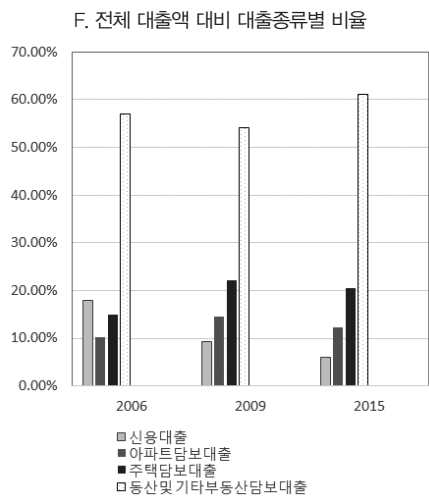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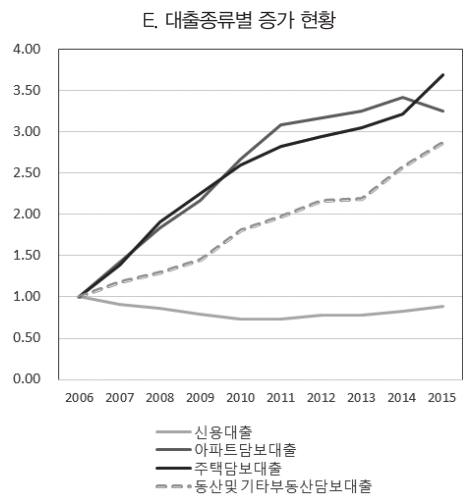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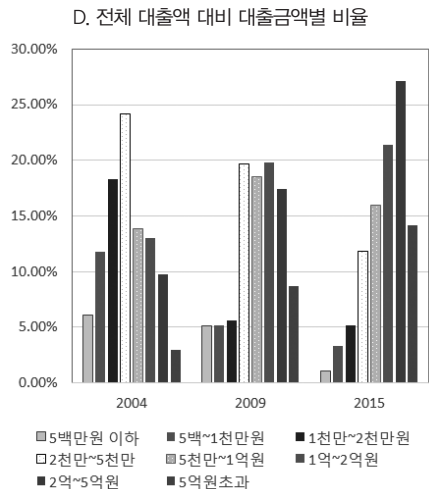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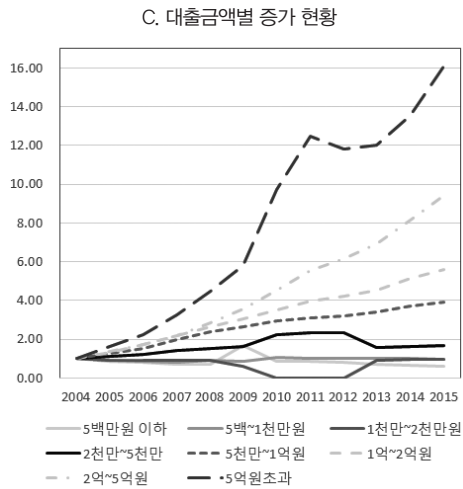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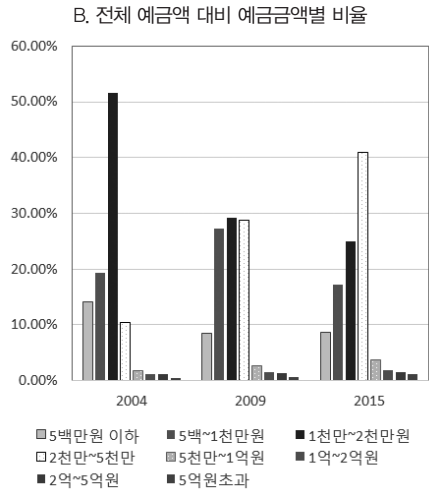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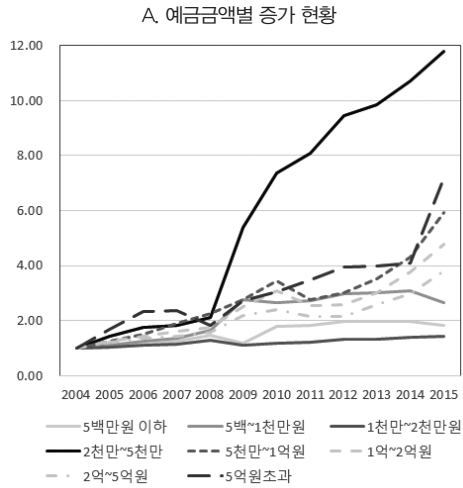
2008년~2010년 동안 지역신협의 성장은 비과세 대상 예금의 증가에 크게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신협의 자금조달에서 발생한 변화를 그린 〈그림3〉의 A, B는 2008년 이후 2천만~5천만 원 예금을 이용한 자금조달이 얼마나 중요하였는가 보여준다. 여기에 비과세 예금이 포함되었다. 비과세 예금제도는 정부의 서민금융기관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서민금융기

관이 시중은행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조치였지만, 높은 예금이자율을 얻기 위해 자산을 선택하는 고소득계층의 포트폴리오 투자로 활용된다. 2천만 원이 비과세 한도액이었을 때는 1천만~2천만 원



〈그림 2〉 지역신협 자산 분포의 변화(2005년과 2015년 비교)

주: 2015년의 자산을 2015년 자산 / (1+물가상승+GDP성장률) = 2015년 자산 / (1+27.5%+69.5%) 로 조정하였음.



〈그림 3〉 지역신협의 예금금액별 증가 현황

주: 왼쪽 그림은 2006=100으로 설정. 오른쪽 그림은 대출총액(또는 예금총액) 대비 규모별 및 형태별 비율임

예금의 비율이 아주 높았으나 3천만 원으로 한도액이 늘어나자 2천만~5천만 원 예금이 크게 증가되었다. 이는 지역신협 조합원이 지역신협을 이용하는 이유가 지역신협 정신과 지역 및 사회적 목적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때문이라는 것을 반영한다.

지역신협의 조합원들이 서민층에서 고소득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협동조합정신에 관심이 없는 조합원이 늘어남에 따라,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는 불가능해진다. 경영진이 지역신협의 주인인 조합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추구와 성장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역신협의 경영진이 금융기관적 성장을 대안

으로 생각하게 될 때, 상업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사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대출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림 3> C, D는 대출의 변화양상을 보여준다.

대출의 양상 역시 2009년에 크게 바뀌었다. 2000년 초반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대출이 가장 많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5억 초과, 2~5억 원, 1~2억 원 대출이 순서대로 크게 증가하였고(그림 C), 신용대출은 줄어들고 아파트와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기타부동산대출의 순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E). 그리고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15년 기준 전체자산의 60%를 차지하는 기타담보대출로 확인되었다(그림 F).

요약하자면, 협동조합의 사회적 목적과 지역경제에

<표 1> 핵심변수에 대한 설명

	변수	계산방법 또는 출처
종속 변수	자산증가율	$\ln(\text{자산}_t) - \ln(\text{자산}_{t-1})$
	조합원가입 1년 미만 신규대출 비율*	$\frac{\text{신규대출액 중 조합 가입 1년 미만 조합원 신규 대출액}}{\text{신규 대출액}}$
	자산순이익률(ROA)	$\frac{\text{당기순이익}}{\text{자산}}$
	부실대출비율	$\frac{\text{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text{대출 총액}}$
설명 변수	신용대출증가율	$\ln(\text{신용대출}_t) - \ln(\text{신용대출}_{t-1})$
	거액대출증가율	$\ln(\text{2억 이상 대출}_t) - \ln(\text{2억 이상 대출}_{t-1})$
	기타담보대출 증가율	$\ln(\text{기타담보대출}_t) - \ln(\text{기타담보대출}_{t-1})$
	액대출증가율	$\ln(\text{1천만원 이하 대출}_t) - \ln(\text{1천만원 이하 대출}_{t-1})$
	소액예금증가율	$\ln(\text{2억 이상 대출}_t) - \ln(\text{2억 이상 대출}_{t-1})$
	비과세예금증가율	$\ln(\text{1천만원 이하 예금}_t) - \ln(\text{1천만원 이하 예금}_{t-1})$
	거액예금증가율	$\ln(\text{2억 이상 예금}_t) - \ln(\text{2억 이상 예금}_{t-1})$
	비과세예금비율	$\frac{\text{2천만~5천만 예금}}{\text{예금 총액}}$
	중앙회예치금비율	$\frac{\text{신협중앙회 예치금}}{\text{자산}}$
	거액대출비율	$\frac{\text{2억 원 이상 대출}}{\text{대출 총액}}$
	담보대출비율	$\frac{\text{담보대출}}{\text{대출 총액}}$
	기타담보대출비율	$\frac{\text{동산 및 기타 담보대출}}{\text{담보대출}}$
	자본자산비율	$\frac{\text{자본}}{\text{자산}}$
	지역별 어음부도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회사채 bbb등급 만기수익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대한 기여에 관심을 갖지 않고 경제적 동기를 중시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조합원의 경영 참여는 약화될 수 있다. 또한 대출자산이 조합원에 대한 소규모 대출보다는 거액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운용됨으로써 경제적 약자들의 금융적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지역신협의 협동조합의 정신은 약화된다. 최근 지역신협의 팽목할만한 성장은 협동조합의 정신에서 점점 멀어지고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역신협의 성장방식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에 불과하다. 개별 지역신협의 미시적 자료를 통해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결론에 도달해야 할 것인데, 이는 3절 이하의 과제이다.

3. 자료

본 논문은 실증분석을 위해 <표 1>에서 제시된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지역신협의 성장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자산증가율, 신규 대출 중 조합가입 1년 미만 대출의 비율을 사용하였으며, 성장이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부실대출비율과 ROA를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로는 비과세예금비율, 담보대출비율, 거액대출비율, 기타담보대출비율, 중앙회 예치금 비율 등의 예금 및 대출관련 변수들이 사용되었으며, 지역어음부도율, BBB등급의 회사채 이자율과 연도 더미 등의 변수들이 거시경제 및 지역경제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자산 상위 1%와 하위 1%를 제거하여 극단치(outlier)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영세 지역신협의 재무정보 생성과정에서

<표 2> 주요변수의 요약 통계량

변수명	Obs	Mean	Std. D.	Min	Max
자산증가율	7156	0.1068	0.1275	-0.5544	1.4319
신용대출증가율	7086	-0.0366	0.2800	-2.1282	3.1553
거액대출증가율	7086	0.3054	0.4828	-1.6027	3.9611
기타담보대출 증가율	6462	0.1235	0.2625	-2.7620	3.2824
소액대출증가율	7086	-0.0077	0.2545	-2.3964	2.3788
소액예금증가율	7083	0.0837	0.1418	-1.0256	1.4028
비과세예금증가율	7083	0.2383	0.2995	-0.6472	3.3266
거액예금증가율	7083	0.1334	0.7582	-3.8224	4.3476
자산순이익(ROA)	7817	0.0024	0.0130	-0.3650	0.0398
부실대출비율	7817	0.0657	0.0576	0.0000	0.7157
조합가입 1년 미만 신규대출 비율*	3194	0.4888	0.1926	0.0200	0.9600
비과세예금비율	7815	0.2614	0.1176	0.0000	0.5418
중앙회예치금비율	7817	0.2745	0.1071	0.0473	0.8443
거액대출비율	7817	0.1932	0.1840	0.0000	0.8628
담보대출비율	7817	0.8864	0.1796	0.0505	3.1335
기타담보대출비율	7817	0.5445	0.2597	0.0000	0.9995
자본자산비율	7817	0.0586	0.0518	-0.3206	0.4274
지역별 어음부도율	7817	0.3841	0.3590	0.0642	4.9208
회사채 bbb등급 만기 수익률	7817	9.3359	1.0808	7.9970	11.7600

자료: 신협 중앙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신규대출 중 조합원 가입한지 1년 미만의 신규대출 비율임. 이 변수는 신협중앙회의 전산시스템에서 개별 대출자료를 이용하여 추출해낸 것인데, 개별 대출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통합된 것이 2011년 정도였으므로 관측치가 다른 변수에 비하여 적음.

의 낮은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표 2>는 주요변수의 요약통계량이다.

4. 실증분석

1) 패널분석 수식

본 논문에서 2004년~2015년 신탁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신협성장에 기여한 핵심요인을 추출하고 지역신협성장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역신협 전체 자료를 이용한 2장의 대략적인 분석에서 우리는 지역신협이 비과세예금을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거액대출, 담보대출, 특히 기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자산을 운용하였음을 보였다. 개별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신협의 성장방식을 분석할 경우에도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실증분석의 목표이다. 아울러 지역신협의 이러한 성장형태가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내생성문제를 완화하는 패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계량분석의 수식은 아래와 같다.

$$g_asset_{i,t} = const + \alpha_i + v_t + \beta X_{i,t} + \mu Z_{i,t} + \varepsilon_{i,t} \quad (1)$$

$$ratio_lessyear_{i,t} = const + \alpha_i + v_t + \lambda g_asset_{i,t} + \beta X_{i,t} + \mu Z_{i,t} + \varepsilon_{i,t} \quad (2)$$

$$ratio_badloan_{i,t} = const + \alpha_i + v_t + \sum_{j=0}^5 \beta_{i,j} X_{i,t-j} + \mu Z_{i,t} + \varepsilon_{i,t} \quad (3)$$

$$ROA_{i,t} = const + \alpha_i + v_t + \sum_{j=0}^5 \beta_{i,j} X_{i,t-j} + \mu Z_{i,t} + \varepsilon_{i,t} \quad (4)$$

종속변수로 사용된 g_asset 은 자산증가율을, $ratio_lessyear$ 은 조합가입 1년 미만의 신규대출비율, $ratio_badloan$ 은 부실대출비율을, ROA 는 자산순이익률을 의미한다. 먼저 자산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수식 (1)은 자산증가에 크게 기여한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신협의 성장방식과 그 특성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조합가입 1년 미만 신규대출비율이 있는 수식 (2)을 통해 자산증가율이나 거액대출증가율, 기타담보대출증가율 등이 증가할 때 신

규 조합원 대출이 얼마나 증가되는지를 살펴보고자 사용되었다. 수식 (2)의 결과를 통해 오랜 거래관계를 가진 조합원이 아니라 신규조합원에 대한 대출로 자산이 크게 성장하였다는 것을 밝힌다면, 이는 사실상 대출을 얻기 위해 신규가입을 한 조합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협동조합의 특성과 잘 맞지 않는 운영방식에 해당한다. 부실대출비율이 종속변수로 사용된 수식 (3)은 자산 또는 거액대출, 기타담보대출 등이 증가할 경우 시차를 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부실대출을 살펴보고자 하기 위함이며, ROA 를 종속변수로 한 수식 (4)은 다양한 대출의 변화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Z_{i,t}$ 는 몇 가지 통제변수인데, 자본자산비율과 같은 개별 지역신협의 특성변수와 거시경제 및 지역경제 관련 통제변수인 해당 지역의 어음부도율과 회사채 BBB 등급의 만기수익률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시간 터미 v_t 를 사용하여 변수화되지 않는 거시경제 상황을 통제하였다. α_i 는 패널 개체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나타내며, 고정효과 모델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별특성을 의미한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설명변수인 $X_{i,t}$ 인데, 여기에는 거액대출비율(또는 증가율), 비과세 예금비율(또는 증가율), 기타담보대출비율(또는 증가율)등이 포함된다. 한편 본 논문의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지역신협의 자산운용의 약 20%를 차지하는 중앙회 예치금 역시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2) 지역신협의 자산성장에 대한 분석

실증분석에 사용된 모델은, 개체내 평균으로 횡단면 분석을 수행한 Between Model, 개체내 변동은 분석하는 고정효과모델(Fixed Effect Model)이다. 고정효과모델 대신 임의효과모델(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하우스만 테스트를 하였고 그 결과 임의효과모델의 계수 값이 고정효과모델의 계수 값과 체계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고정효과모델의 계수를 사용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모델(Fixed Model_low)와 모델(Fixed Model_high)는 과거 10여 년 동안의 연평균자

〈표 3〉 자산증가률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종속변수: 자산증가률	BE		Fixed Model		Fixed Model_low		Fixed Model_high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비과세예금비율	0.095**	0.04	0.329***	0.05	0.321***	0.06	0.419***	0.09
중앙회예치금비율	-0.138***	0.03	0.041**	0.02	0.024	0.02	0.017	0.03
거액대출비율	-0.022	0.02	0.014	0.02	0.033	0.02	0.071***	0.03
담보대출비율	0.085***	0.02	0.051***	0.01	0.017	0.02	0.079***	0.02
기타담보대출비율	-0.028**	0.01	0.012	0.01	-0.025*	0.01	0.035**	0.02
자본자산비율	-0.088*	0.05	-0.274***	0.06	-0.415***	0.08	-0.241***	0.09
부실대출비율	-0.270***	0.05	-0.434***	0.03	-0.334***	0.04	-0.479***	0.05
지역어음부도율	-0.029**	0.01	-0.001	0.00	0.002	0.00	-0.011	0.01
사채BBB 이자율	0.041***	0.09	-0.003	0.01	0.040***	0.01	-0.048**	0.02
연도더미_2007			-0.058***	0.01	-0.059***	0.01	-0.058***	0.01
연도더미_2008			0.011	0.02	-0.068***	0.02	0.091***	0.03
연도더미_2009			0.095**	0.04	-0.067	0.04	0.246***	0.07
연도더미_2010			0.011	0.03	-0.098***	0.03	0.097**	0.05
연도더미_2011			-0.144***	0.03	-0.215***	0.03	-0.101**	0.04
연도더미_2012			-0.072***	0.02	-0.102***	0.02	-0.075***	0.03
연도더미_2013			-0.166***	0.01	-0.153***	0.02	-0.214***	0.02
연도더미_2014			-0.130***	0.01	-0.123***	0.02	-0.175***	0.02
연도더미_2015			-0.142***	0.02	-0.105***	0.02	-0.222***	0.03
절편	-0.290***	0.089	0.075	0.10	-0.264**	0.10	0.440***	0.16
연도더미	No		YES		YES		YES	
관측치	7,156		7,156		3,605		3,551	
조합수	706		706		329		377	
R2	0.2371		0.3218(within)		0.3484(within)		0.3384(within)	
F-value	22.04***		169.53***		96.76***		89.67***	
Hausman test	82.18***		52.02***		676.74***			

산증가율이 그것의 평균인 10.68%를 초과하는 경우를 고성장(high)로, 그보다 낮은 지역신협을 저성장(low)신협으로 분류하여 각각 회귀분석한 결과들인데 이를 통해 고성장 지역신협과 저성장 지역신협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위의 분석 결과 모든 모형에서 비과세 예금이 자산증가율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횡단면 모형(Between Model)을 본다면, 예금총액 대비 비과세예금의 비율이 높은 지역신협의 자산증가율이 다른 지역신협보다 크다.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서서는 개별지역신협의 비과세예금비율이 1% 증가시키는 경우 자산증가율이 0.329% 정도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고성장 지역신협의 경우

0.419% 증가하여 저성장 지역신협보다 비과세 예금이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유의미하게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지역신협 정체성 논쟁에서 성장론자가 승리를 거두면서 지역신협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성장전략을 확고히 하게 되고, 정부의 서민금융기관 육성책의 하나인 비과세예금제도가 지역신협의 성장전략에 필요한 예금을 끌어들이는데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상호성이나 조직의 사회적 목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조합원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더하여 지역신협의 임직원들이 지역신협 설립자들의 사회적 목표에서 멀어져 상업적으로 매력적인 사업을 추구할수록 지역신협 고

유의(original) 고객보다는 고소득집단의 조합원-고객을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신협을 운영하게 된다. 저축을 동원하기 위해 이들을 조합원으로 적극 받아들이지만, 많은 경우 이들은 협동조합의 사회적 목적을 중중하지 않는다. 상호성이나 조직의 사회적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합원이 줄어들면 조합원의 경영참여의지가 약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지역신협의 민주주의는 약화되고 특히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신협의 노력도 감소하면서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

다음으로 거액대출비율과 담보대출비율, 그리고 기타담보대출비율이 자산증가율에 미친 영향을 보자. 저성장 지역신협의 경우 이 변수들이 자산증가율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이와 달리 고성장 지역신협의 경우 이 변수들의 자산증가율에 미친 영향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거액대출과 담보대출, 그리고 기타담보대출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지역신협은 자산증가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그림 3>의 F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4년에는 1천만~2천만 원과 2천만 원~5천만 원 대출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지만 2015년에는 2억~5억원의 대출이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거액대출은 대부분 담보대출의 형태를 취하고 많은 경우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사업자들에게 대한 대출로서 기타담보대출이 많다. 이러한 대출의 변화는 소액예금과 소액대출을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조합원 간의 상호성에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적 금융기관이 아니라 비과세 예금과 거액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영업하는 금융기관의 전형적 모습으로 진화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합원의 상호성에 대한 간단한 지표로서 $\frac{\text{대출자의 수}}{\text{예금자의 수}}$ 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2004년 0.13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0.079이었다.

상호성이 붕괴된 다소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거의 없는 조합도 있다. 2009년 말 기준 자산규모가 1,000억 원 수준인 어느 조합 수신거래자의 여신거래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수

신거래자(수신 잔액 100만 원 이상)가 보유한 조합 내 대출금은 3백만원에 불과”하다(안승용, 2012). 문제는 수신거래를 하는 조합원의 차입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들은 조합 이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640억 원 이상 차입하고 있다. 이 중 56.7%(351억 8천만 원)은 은행에서 차입하고 나머지 45.3%(291억 4,800만 원)은 농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비은행에서 차입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모형에서 자본자산비율이나 부실대출비율이 높은 지역신협이나 이를 높이는 지역신협은 모두 다소 보수적으로 자산운용을 하여 자산증가율이 감소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고성장하는 지역신협의 경우 2008년과 2009년, 그리고 2010년에 급속히 성장하는 모습을 연도 더미변수의 계수값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신협의 성장이 오랫동안 거래한 조합원에 대한 거래액을 증가시켜 가능했는지 확인해보자. 만약 신규가입자에 대한 대출이 크게 늘어났다면, 이는 대출만을 목적으로 조합을 가입한 조합원에게 신용을 공급한 것이다. 자산증가율과 연관된 대출이 거액대출 및 담보대출, 특히 기타담보대출이라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거래관계가 거의 없는 차입자에게 담보를 근거로 신용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 간의 상호성에 기반한 금융협동조합의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먼저 자산의 증가율이 높을수록 조합가입1년 미만 신규대출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표 4> BE와 고정효과모델1(Fixed Model_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신협의 자산을 구성하는 다양한 대출이나 부채를 구성하는 다양한 예금들이 모두 조합가입1년 미만 신규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님을 고정효과모델3(Fixed Model_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대출이 증가하거나, 소액대출이 증가하거나, 비과세예금이 아닌 거액예금이 증가할 경우, 조합가입1년 미만의 신규대출비율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역신협의 성장을 이끈 핵심 요인인 비과세 예금과 거액대출, 담보대출 및 기타담보대출은 신규차입자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되었으며, 이는 조합

〈표 4〉 조합가입 1년 미만 신규대출비율에 대한 패널분석

종속변수: 조합가입1년 미만 신규대출비율	BE		Fixed Model_1		Fixed Model_2		Fixed Model_3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자산증가율	0.900***	0.11	0.297***	0.02				
비과세예금 증가율					0.138***	0.02	0.075***	0.02
거액대출증가율					0.047***	0.01	0.070***	0.01
기타담보대출증가율					0.066***	0.01	0.051***	0.01
신용대출증가율							-0.011	0.01
소액대출증가율							0.013	0.02
거액예금증가율							-0.001	0.00
자본자산비율	-0.820***	0.13	-1.053***	0.18	-1.036***	0.18	-0.827***	0.22
지역어음부도율	-0.174***	0.02	-0.007*	0.00	-0.007*	0.00	-0.007	0.00
사채BBB 이자율		-0.023***	0.00	-0.026***	0.00	-0.026***	0.00	
연도더미_2012			-0.090***	0.00	-0.073***	0.01	-0.074***	0.01
연도더미_2013			-0.059***	0.00	-0.054***	0.01	-0.058***	0.01
연도더미_2014			-0.029***	0.00	-0.026***	0.00	-0.025***	0.01
절편	0.542***	0.02	0.775***	0.02	0.805***	0.03	0.788***	0.03
연도더미	No		YES		YES		YES	
관측치	3,191		3,191		2,813		1,995	
조합수	655		655		604		524	
R2	0.2053		0.2177(within)		0.2743(within)		0.2768(within)	
F-value	56.07***		100.54***		92.40***		46.53***	
Hausman test					287.66***		491.83***	

원들간의 상호성을 근간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정신과 거리가 있다. 또한 성장중심의 발전이 조합원의 상호성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이러한 성장전략이 결과론적으로 안정성, 더 나아가 수익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는 다음 부분에서 다루어진다.

3) 성장중심적 발전과 수익성 및 안정성과의 관계

먼저 〈표 5〉 모델1에서 자산증가율이 증가되면 부실대출비율이 초기에는 감소하지만 뒤로 갈수록 증가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초기 부실대출이 줄어드는 것은 이 변수의 분모인 대출총액이 증가되었고 부실대출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나타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현상은 모델 2와 3, 그리고 4의 기타담보대출증가율, 거액대출증가율의 계수값에서 체계적이고 강하게 관찰된다. 2년, 3년, 4년, 5년으로 갈수록 초기의 부실대출비율 감소효과는 소멸되고 오히려 부

실대출비율이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의 분석에서 자산증가율이 거액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거액담보대출이 거래 관계가 별로 없는 신규 조합원 가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신규조합원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차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과 연결된다. 급격하게 자산을 증가시키는 경우 시중은행에게서 대출이 거부되었던 주변부 대출이 기타담보를 근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생각지도 못한 생략된 변수에 의해, 거액대출과 기타담보대출 등의 증가가 우연히 부실대출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비교목적으로 모델 4를 추가하였다. 모델4의 결과, 거액대출 등이 시차를 두고 부실대출비율을 증가시키는 반면 소액대출의 증가율이 부실대출비율을 증가시켰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 힘들었다. 마지막으로 자산증가율이 ROA에 준 영향을 〈표 6〉을 통해 확인해보았는데, 유의미한 증거

〈표 5〉 자산증가율, 기타담보대출증가율, 거액대출증가율이 부실대출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부실대출비율	Fixed Model_1		Fixed Model_2		Fixed Model_3		Fixed Model_4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자산증가율(t)	-0.040***	0.008						
자산증가율(t-1)	-0.021***	0.007						
자산증가율(t-2)	-0.001	0.007						
자산증가율(t-3)	0.018***	0.007						
자산증가율(t-4)	0.005	0.006						
자산증가율(t-5)	0.010*	0.006						
기타담보대출증가율(t)			-0.009***	0.003				
기타담보대출증가율(t-1)			-0.002	0.003				
기타담보대출증가율(t-2)			0.012***	0.003				
기타담보대출증가율(t-3)			0.010***	0.003				
기타담보대출증가율(t-4)			0.007***	0.002				
기타담보대출증가율(t-5)			0.003	0.003				
거액대출증가율(t)					-0.020***	0.003	-0.020***	0.003
거액대출증가율(t-1)					-0.002	0.003	-0.002	0.003
거액대출증가율(t-2)					0.005*	0.003	0.006**	0.003
거액대출증가율(t-3)					0.007***	0.003	0.007***	0.003
거액대출증가율(t-4)					0.008***	0.002	0.008***	0.002
거액대출증가율(t-5)					0.003*	0.002	0.003*	0.002
소액대출증가율(t)							-0.004	0.005
소액대출증가율(t-1)							-0.007	0.004
소액대출증가율(t-2)							-0.002	0.004
소액대출증가율(t-3)							0.002	0.004
소액대출증가율(t-4)							0.001	0.004
소액대출증가율(t-5)							0.004	0.004
지역부도율	0.001	0.001	0.000	0.001	-0.000	0.002	-0.000	0.002
사채BBB 이자율	0.012***	0.001	0.002	0.002	-0.007***	0.002	-0.005*	0.003
절편	-0.054***	0.009	0.057***	0.019	0.145***	0.022	0.123***	0.026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관측치	3,696		3,060		2,135		2,133	
조합수	643		635		483		482	
R2	0.1387(within)		0.1828(within)		0.1812(within)		0.1831(within)	
F-value	40.79***		49.11***		30.25***		20.33***	

〈표 6〉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ROA	Fixed Model_1		Fixed Model_2		Fixed Model_3		Fixed Model_4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자산증가율(t)	0.008***	0.001						
자산증가율(t-1)	-0.001	0.001						
자산증가율(t-2)	0.000	0.001						
자산증가율(t-3)	0.000	0.001						
자산증가율(t-4)	-0.001	0.001						
자산증가율(t-5)	0.001	0.001						

(계속)

(계속)

종속변수: ROA	Fixed Model_1		Fixed Model_2		Fixed Model_3		Fixed Model_4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기타담보대출증가율(t)			-0.001	0.001				
기타담보대출증가율(t-1)			0.001	0.001				
기타담보대출증가율(t-2)			-0.001	0.001				
기타담보대출증가율(t-3)			-0.000	0.001				
기타담보대출증가율(t-4)			-0.000	0.001				
기타담보대출증가율(t-5)			0.001	0.001				
거액대출증가율(t)					-0.001	0.001	-0.001	0.001
거액대출증가율(t-1)					0.000	0.001	0.000	0.001
거액대출증가율(t-2)					-0.000	0.001	-0.000	0.001
거액대출증가율(t-3)					-0.000	0.000	-0.000	0.000
거액대출증가율(t-4)					-0.000	0.000	-0.000	0.000
거액대출증가율(t-5)					-0.00*	0.000	-0.00*	0.000
소액대출증가율(t)							-0.000	0.001
소액대출증가율(t-1)							-0.000	0.001
소액대출증가율(t-2)							-0.001	0.001
소액대출증가율(t-3)							0.000	0.001
소액대출증가율(t-4)							-0.000	0.001
소액대출증가율(t-5)							-0.000	0.001
지역부도율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사채BBB 이지율	0.001***	0.000	0.003***	0.000	0.003***	0.000	0.003***	0.000
절편	-0.009***	0.002	-0.024***	0.004	-0.025***	0.004	-0.028***	0.005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관측치	3,696		3,060		2,135		2,133	
조합수	643		635		483		482	
R2	0.0846(within)		0.0462(within)		0.0802(within)		0.0817(within)	
F-value	56.07***		10.71***		11.92***		9.07***	

를 찾지는 못하였다. 자산증가율이 수익성의 개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ROA 이외의 수익성 지표로 자산대비 영업이익을 사용해도 동일하게 뚜렷한 관계를 찾지 못하였다(본 논문에 소개하지 않음).

5. 결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역신협이 금융협동조합의 길이 아니라 성장을 강조하는 금융기관의 성장경로를 밟아왔다고 평가한다. 이는 2장에서 제시하였듯이, 1970년대 이후 지속된 지역신협성장과 관련

된 정체성논쟁에서의 성장논자의 승리와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이 낳은 복합적인 결과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2000년대 이후 지역신협의 성장방식을 추적하고 실증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신협의 성장이 비과세예금을 중심으로 한 자금조달, 거액대출과 담보대출 및 기타담보대출을 통한 대출자산의 증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실증분석하였다. 비과세 예금은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과 협동조합의 정신, 지역신협의 사회적 목적에 대한 인식을 갖춘 조합원이 아니라 저금리 시대에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를 얻으려는 조합원을 증가시키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를 어렵게 하는 문

제를 낳는다.

또한 거액대출과 담보대출 및 기타담보대출의 통한 성장전략은 조합원들 간의 예금과 대출의 상호연결성을 약화시키고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차입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조합에 신규가입하는 비율을 높이는 경향을 낳았다. 상호성의 약화와 정보가 취약한 신규가입자에 대한 담보대출의 증가는 협동조합의 성격과도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신협의 자산건전성에도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자산성장과 자산건전성, 그리고 수익성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자산증가는 단기적으로 자산건전성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거액대출과 기타 담보대출 등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는 자산의 크기를 증가시켜 부실대출의 비율을 감소시키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용위험이 증가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특히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기타담보대출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실대출의 증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지역신협의 지속가능성에 다소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자산성장이 자산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면서 조합임직원의 자산운영에서 조합임직원의 재량권은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다시 지역신협의 위험선호를 높이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렇지만 보다 우려되는 점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성격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규모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신협의 핵심경쟁력은 지역사회에 밀착하는 데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조합원구성의 다양성, 민주적 관리의 저해 등은 지역신협의 지역밀착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없게 한다.

금융협동조합이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힘은 조합원들 간의 상호연결성에 의한 정보공유, 상호이익의 증대, 그리고 이를 통한 자연스런 지역밀착에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는 신협이 의지할만한 지역 유대 내지는 공동체성을 찾아볼 수 없다. 신협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유대

를 강화할 수 있는 지역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와의 협력을 통해 그 강점을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보다 체계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주

- 1) 신협은 공동유대에 따라 지역신협, 단체신협, 직장신협으로 구분되는데, 지역신협은 지역을 공동유대로 한 비영리법인이다(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공동유대는 협동조합의 등장과 함께 계속되어 온 개념으로서, 조합원간의 상부상조, 이익의 지역 및 조합원에게로의 환원, 지역유대감의 강화라는 이념에 입각해 있다. 신협운동은 도시민들 내지는 서민들 간의 금융적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 2) 당시의 논쟁에 대한 상세한 검토로는 최진배(2012) 참조.
- 3) 상세한 내용은 최진배(2013) 참조.
- 4)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서술로는 신협연합회(1982) 참조.
- 5) 당시의 논쟁을 윤영성(1984)는 이렇게 정리한다. “신협의 현실을 이야기할 때 그 관점에 따라 흔히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명분과 실익에 대한 상호보완적이 아닌 대립적 갈등이 그것이다. 즉 ‘신협은 운동이지 금융기관이 아니다’라는 이념추구에 적극적인 주장과 ‘합리화된 금융활동을 통해서만 신협 이념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경영적 측면을 강조하는 주장이 있다.”
- 6) 당시 상황에 대한 검토로는 최진배(2013 a)(2013 b) 참조.
- 7) 정형보전문자의 하나인 이상호는 1970~80년대를 회고하면서 “조합원 교육과 임원 교육이 거의 무시된 상태에서 조합수는 늘어났고 자산 키우는 경쟁이 일어났다”(이상호, 2003: 252-3)고 말한다. 한편 송보경(1976)에 의하면 다수의 신협 임직원들은 1970년대에도 조합을 크게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980년대 초에는 “퇴색된 신협이념을 고수하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성격만이라도 명확히 하자”(신협연합회, 1982)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8) 1980년대 80%에 이르던 자산대비 대출의 비중은 1990년대에는 60-70%대로 하락하였다. 최진배(2013 b) 참조.
- 9) 예컨대 이덕훈(1996)은 이렇게 말한다. “신용협동조합은 구성원들의 단순한 협동조직에서 서민금융에 특화된 전문금융조직으로 변신할 수 있어야 한다.”
- 10) 신협이 틈새시장에서 자신의 존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당시의 주장은 다음 지적에서 잘 나타난다. “금융시장은 ...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하므로 ... 분할된 시장이 존재한다. ... 은행 등이 서민의 소매금융분야에 진출한다 할지라도 은행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가계와 영세소상인은 남게 된다. 바로 이 같은 서민가계와 영세소상인의 존재가

신협준립의 기초가 된다.”(이천우, 1996)
11) 이에 대한 검토로는 최진배(2015) 참조.

계재신청 2016.12.09

심사일자 2016.12.11

계재확정 2016.12.19

주저자: 김명록, 교신저자: 최진배

참고문헌

- 김병주 외, 1981, 『비통화금융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은행.
- 김정원, 2014, 한국의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전망
- 김성기 · 김정원 · 변재관 · 신명호 · 이견직 · 이문국 · 이성수 · 이인재 · 장원봉 · 장중익, 2014,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전망』, 아르케.
- 송보경, 1976, 『한국 신용협동조합 운동에 관한 연구』, 협동교육연구원.
- 신용협동조합연합회, 1982, 신협인의 의식구조의 분석 및 평가, 『조사연구』, 1(1), pp.131-179.
- 안승용, 2012, 『신협의 신용대출 현황 및 확대방안』, 신협중앙회, 이슈분석보고서 2012-12, 신협중앙회.
- 윤영성, 1984, 신협금리 이대로 좋은가, 『문』, 3, pp.91-98.
- 이덕훈, 1996, 경제의 형평증진과 신용협동조합의 발전방안, 『조사연구』, 27, pp.3-34.
- 이상호, 2003, 『참된 용기는 희망을 낳고』, 덕산기획.
- 이재용 · 최장봉, 1989, 은행산업과 비은행금융중개산업, 『금융산업의 업무영역 조정-1989년 상반기 금융정책 · 경영 워크』.
- 이천우, 1996, 금리하향 안정화추세와 신협의 대응방안, 『조사연구』, 27, pp.51-69.
- 이환영, 1991, 신협의 금융기관화 추세와 신협의 이념, 『조사연구』, 19, pp.77-93.
- 전철환, 1990, 금융환경변화와 신협금융 발전방향, 『조사연구』, 18, pp.5-21.
- 최진배, 2012, 1970년대 신협의 발전방향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검토, 『한국협동조합연구』, 30(3), pp.29-59.
- 최진배, 2013 a, 1980년대 신협 정체성 논쟁의 의미와 한계, 『산업혁신연구』, 29(2), pp.115-148.
- 최진배, 2013 b, 1980-90년대의 금융자율화와 신협의 대응, 『지역사회연구』, 21(4), pp.21-48.
- Birchall, J., 1997,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Movement』(장중익 옮김, 『21세기의 대안 협동조합운동』, 들녘).
- Laidlaw, A. F., 1980, Co-operatives in the Year 2000(양윤모, 1988,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 광주 제일문화사).